

지난 해 9월 덴마크의 최대 일간지 <일란스 포스텐>에 실린 12컷 짜리 마호메트 풍자만화 파문이 급기야 이슬람 세계와 유럽 여러 나라들 간의 문화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기에는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심지어 불이 붙은 폭탄 모양의 터번을 두르고 있는 모습도 있고 자살폭탄 공격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천당을 방문하자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선물할 처녀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캐리커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신앙의 대상인 마호메트에 관한 초상이나 사진, 동상 등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에겐 대단히 모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종교적 금기에 유럽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표면상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는 서구적 가치와 이슬람의 종교적 권위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의 관점을 빌리면 그 이면에는 기독교문명과 이슬람문명 간의 해묵은 감정적 앙금이 도사리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양 측이 서로 자신의 문화



불자 세상보기

허남길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마호메트 풍자 만화

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확산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편에서는 특정 종교의 금기사항을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얼굴을 제멋대로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한다.

연일 대규모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아랍국가 내의 유럽 대사관들이 불타는가 하면, 터키에서는 가톨릭 신부가 살해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은 덴마크와의 통상관계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의 자유가 지나쳤다는 서방 언론의 자성과 함께 무슬림들의 폭력적 시위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그나마 조금은 안심된다.

바티칸의 교황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종교적 믿음을 손상시킬 권리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이슬람권 언론에서도 '우리의 분노를 그런 방식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폭력 자체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사소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자칫 종교에 기반을 둔 문명적 충돌로까지 치달는다면 이는 실로 인류 전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새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내가 알고 있고 옳다고 믿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텅 빈 것에 불과하다는 깨우침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으로 맺어진 연기의 다발일 뿐 결코 저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부처님 법은 언제 들어도 진리 그 자체로 와 닿는 것이다. 그런 불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인 종교적 배타성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처럼 불교는 그 본질상 다른 이웃 종교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불교 또는 불교교가가 자신의 종교적 이념을 상대방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전례가 있는가? 단언코 없다고 기억한다. 이것은 실로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불교인들은 다시 한 번 종교적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 싶다.

불자의 눈

새해 들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이 사회복지사업 강화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인 사회복지 수준은 나라의 격(格)을 말하며, 한 사회의 양심수준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이같은 불교계 움직임은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곧 선진국 문턱을 넘게 된다는 한국이지만 복지문제는 아직 과도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복지수준을 높여가야 할 종교계 가운데 불교는 다종교에 비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개선의 노력을 해 왔고 이제 본격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때도 되었다. 조계종은 올해 '사회복지진흥법'을 만들어 산하 단체 복지기관들을 종단이 통합관리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하의 복지시설들을 한데 묶어 체계화하고 시설관리에 효율

각 종단 복지사업 강화 '환영'

성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사업은 관심있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활동과 사찰 단위 사업에 머물러 시설미비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운용에서의 일관성도 결여돼 있었다. 종단의 통합관리는 이런 단점들을 얼마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못지않게 사회복지 사업을 떠 올린 종에서는 '진각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시설과 미혼모시설 등 신규 시설 개원, 시설내 지도스승제 도입과 사회복지사단의 지역별 확충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천태종 역시 6월중 의료봉사 등 기능별 직능별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구성, 전국 사찰 단위로 본격적 봉사 및 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불자들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으뜸이 보시바라밀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문제는 그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동안 교계의 실천 노력 덕분에 이제 복지문제 해결도 한단계 도약할 여건이 무르익었다. 각 종단들이 한층 복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펴는 올해,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해 높은 성과를 올리기를 바란다.

■김경자(법륜스님)



이렇게 들었다 "너나 잘하세요"
'불무관과 작어부작 상사성신 지정부정(不務觀彼 作與不作 常自省身 知正不正)' 다른 사람이 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애써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르지를 알라. <법구경 심의품>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나라 안이 시끄러웠다.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청문회가 한국에서는 1988년 11월 5공부리 청문회를 시작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이후 수많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속돼온 청문회 제도가 왠지 국민들의 귀만 어지럽히고 있는 느낌이다.
진실을 조사해 정치적 사회적 과오를 시정하고 정권 고위직 인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기능은 갈수록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츰 정치적 공세로 상대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는 정치권의 정쟁이 반복되는데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부는 청문절차를 통해 현 공직자이나 앞으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 모두 법을 지키고 자기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지는 긍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혼수와 짜증만을 부를 뿐이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할 것 같다.
자신에 대한 '돌아봄'은 소위 '잘 난' 사람일수록 인색한 것 같다. 그래서 <금강경>의 중생이 버려야 할 '수자상'에 대한 언급은 더 할 나위 없이 귀한 가르침이다. 불교에서 가장 경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만함이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떤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본인이 '어찌하고 있나'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절할 금자씨는 말했다. "너나 잘하세요."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2006년에도 단기출가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1월 5일~2월 3일까지 열린 올해 첫 단기출가에 동참했던 2명의 소감문을 요약해 싣는다.
절은 한가한 곳이 아니었다
목소리부터 달라진 내 생활
돌아켜보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어찌하면 편하고 재미있었나 몰두한 것에 다름아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여행하는 것 모두 그랬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 달 동안은 몸이 다소 고물지라도 그 가집을 버리는 혼란을 계속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 그를 통해 해탈하는 기쁨의 단초를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막연히 동경해 온 스님 생활의 일단을 엿본 것이며, 속가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기도 하다.
웃되 해프지 아니하고, 막되 탐하지 아니하고, 말하되 생각을 거쳐하며, 놀되, 문란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몸과 머리로 배웠다. '세상이 고달플 때 머리 꺾고 들어가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떨쳐 버렸다. 절은 나같이 미숙한 인간이 머무를 한가한 곳이 아니며, 스님들이 아무일 않고 시주나 받는 불로소득자가 아니라는 것, 재가신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배웠다.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율한해를 산다면 내 한달 동안의 출가는 속세에서도 계속 풍요롭게 이어질 것 같다.
(범조)

불교 1번지 조계사 인근 제대로 육성해야
'현대불교' 564호 '불교 1번지 견지동 타운이 뜬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일대에 대한 특성과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충주원이나 조계사를 중심으로 불교관련 업체나 기타 관련 사무실들이 기계적이 아닌 화학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네트워크화 하느냐를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단지 상업적 개인적 사무실로서만 존재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한국불교의 중심지로서 문화 클러스터로 발전하려면 견지동 인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분야별 등)와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공경회 등을 열어 심도 깊은 토론과 발전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또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충주구청장 후보에게 조계사 일대를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전략적 육성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응집시키고 불교의 저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총논부(붓다뉴스)

조금만 둘러보면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습니다.
복을 짓게 해주는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운입니다.
시냇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정성이 모여 연꽃세상을 만듭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9시 5분
부처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만남은 계속됩니다.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